

이재상 박사

형법

집중정리 강의

■ 강의일정 2018년 1/19(금) ~ 2/14(수), 총 23 회, 월~토 강의
오후강의 - 오후 2:00 ~ 5:30

■ 교 재 로스쿨 형법(저자, 2018 전면개정판 가제본, 제공) + 사례대비 판례 사실관계 300선(자료, 제공)

■ 강의특징 1. 강의시작 전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1) 벌써 약 7개월(8.25) 앞으로 다가 온 2018년도 시행예정 제36회 법원 행정고시를 대비한 최적의 형법강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1순환 강의는 단순히 형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기본강의가 아닙니다. 1순환 강의는 법행 1·2차 대비 집중정리 강의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실전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전에 잘 적용할 수 있는 Know-How를 쌓아나가야만 하는 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험은 벌써 약 7개월 남짓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형법지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 익히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실전대비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 강의와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 강의는 따로 떨어진 강의가 아니라 연속성 있는 통합강의이어야 합니다.

형법은 전형적으로 객관식 쟁점과 사례형 쟁점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례형 쟁점이 곧 객관식 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로 떨어진 공부가 아니라 사례형과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3)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 위주로 시험에 대비하여야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① 기출 및 출제예상 쟁점 위주로 보는 것이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큰 미덕인 수험생활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②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 사례쟁점에는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하여 기출문제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의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곧바로 알게될 것입니다.

③ '선택과 집중'이 본 1순환 강의의 모토입니다. 강의시간에 시험 직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표시해주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공부방법을 이후의 1차 시험 대비는 물론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연습하고, 실제 법행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총 23회 강의 기간 동안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면서도 기출쟁점 및 출제예상쟁점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의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은 본 시험에서 절대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얼마든지 혼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5) 법행 시험에 전혀 출제되지 않는 형법의 핵심이론들은 절대 강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는 착오론이나 공범론 같은 형법의 핵심이론들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나 법행 시험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형법이론이 그것도 불과 몇 개의 지문으로 출제될 뿐이고, 판례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조문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법원행시 합격을 위하여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판례를 잘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이론이나 설명하고, 이론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법조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재소개

강의 기본교재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2018 전면개정판, 월비스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원행시 대비를 위하여 본 교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혁신하였습니다.

(1) 전면개정판은 2월 중 출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정판의 '가제본'을 실강의 수강생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원고편집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지만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시 문제는 빨라야 2018년 1월 15일해야 공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간예정일이 2월 중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수강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형법 기본서로는 시중에 출간된 수험서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인 약 770 Page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에서 중점으로 삼은 것은 더 적은 분량으로 더 많은 내용을 수록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법행이나 변시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아주 쉽게 형법의 제반문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1차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여 약 3,700여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모든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②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아주 긴 내용의 극소수의 몇몇 판례들을 제외하고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가능하면 4~5 줄 이내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④ 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⑤ 동지판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쪽 나열하는 부분에서는 핵심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앞에 판례취지를 요약한 제목을 일일이 달아놓음으로써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2차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50개 가까운 핵심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형법의 법조문과 핵심이론을 약 200개의 도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법의 법조문은 매년 4~5 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6) 형법 사례해결을 위한 쉬우면서도 풍부한 기술과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 ① 법학과목은 사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핵심쟁점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습과 사례해설 항목을 수록하여 사례쟁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핵심판례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 그밖에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 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7) 교재 본문에서도 기출지문을 적극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주에 기재한 기출판례지문 뿐만 아니라 교재 본문에서 기출판례 지문은 적극적으로 기출표시를 하여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곧 형법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8)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사례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에 대한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① 법행이나 변시, 법전협 모의시험이나 사시에서 출제된 바 있는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법행 등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 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2차 사례쟁점에도 모두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은 곧 형법과목의 특A급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중점적 강의진행사항

(1) 형법 중요쟁점의 체계적 정리와 선택형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형법 단권화 구축

- ① 법원행시, 사시, 변시, 법전협 모의시험이나 사시의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적인 중요쟁점을 엄선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자주 출제되는 쟁점은 '자세하고 철저하게' 함께 정리하고,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수험생 자신의 정리에 맡길 것입니다.
- ② 강의교재에 수록된 법행, 변시 등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 해설하여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빈출쟁점을 뽑아내어 향후 출제될 쟁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교재의 자랑인 '누적된 기출표시'는 향후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모르고는 법행 시험에 합격할 수 없으며, 반대로 판례만 제대로 공부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몇몇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시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판례와 결론만 암기해도 되는 판례를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법행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판례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 법행에서는 중요이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대신, 판례와 이론이 모두 담겨 있는 중요쟁점에 대한 실시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핵심판례의 기본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반면,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례를 학습하여 익히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본 강의는 출제가능 한 중요판례의 취지와 의미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입니다.

③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사례문제와 상호 연계성을 중시하는 통합적 강의진행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례의 논거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행시 문제는 특히나 변시나 사시 문제하고는 달리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함께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아주 많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논거와 결론 부분은 그대로 2차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지에 현출되는 내용으로 재활용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사실 1차와 2차의 구별이 없는 수험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목의 수험강의 역시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사례문제의 상호 연계성을 중시하는 통합적 강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고득점 합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④ 형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형법이론 문제가 불과 몇 지문밖에 출제되지 않는 대신,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3-4개 정도 출제됩니다. 지문으로는 5지 선다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0 지문 정도 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교재를 중심으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⑤ 선택형 지문의 출제방식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 선택형 지문은 궁극적으로 OX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 (O)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판례의 기본내용과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X)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판례의 내용이 출제지문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숙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논거나 취지를 반대로 만들어서 출제하는 방식이 주된 경향입니다. 이는 기출지문을 많이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3)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 문제) 대비

①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례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례 문제는 100% 사실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객관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결론만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도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②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사실관계 300선을 제공합니다.

사례문제로 출제되는 형식과 동일하게 정리된 학습교재인 판례 사실관계 300선을 제공합니다. 수업시간에도 함께 빠짐없이 읽어 보겠지만, 이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2차 사례문제 해결의 80%는 이미 달성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판례 사실관계의 결론과 누적적인 기출표시를 말미에 달아놓음으로써 충분히 객관식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판례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의 기본취지를 2줄 정도로 압축하여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지에는 핵심내용만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없고, 답안지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2차 시험 답안지 1장, 4쪽은 생각보다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굳이 중언부언하면서 답안지 2장 분량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장 4쪽 분량이라고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답안지라면 최종합격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답안지를 짧게 기술하는 방법을 익히고 또 익힐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④ 법원 행정고시 사례 문제의 출제 패턴을 잘 숙지하게 하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 변이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6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5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지난 6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그 논거 및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어지는 2순환, 3순환 강의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답안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⑥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 등을 정리합니다.

판례의 내용 이외에도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할 표현방식과 문구, 답안의 분량조절의 방법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형법총론 부분 보다는 형법각론 부분을 보다 많이 강의합니다.

법원행시는 총론보다는 각론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1차 객관식에서는 그래도 총론부분이 다양하게 출제되지만, 2차 사례문제에서는 총론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이어한 법원행시의 출제형식에 맞추어 각론 부분에 더 많은 강의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4.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형법과목에서는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문형 필기시험, 즉 사례문제는 그 방법론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례 문제는 반드시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 문제로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객관식 문제 중 제일 중요한 쟁점들이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2차는 학습하는 방법론만이 다른 것이지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 판례의 Leading Case의 학습은 사례 문제,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대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진도별 강의내용

회 차	일 정	강 의 내 용		비고
1	1/19(금)	【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법인)	
2	1/20(토)		부작위범/상당인과관계/구성요건적 고의	
3	1/22(월)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위법성론(1)	
4	1/23(화)		위법성론(2)/책임론(1)	
5	1/24(수)		책임론/미수론(1)	
6	1/25(목)		미수론(2)/공범론(1)	
7	1/26(금)		공범론(2)	
8	1/27(토)		공범론(3)	
9	1/29(월)		죄수론	
10	1/30(화)		형벌론	
11	1/31(수)	【 형법각론 】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1)	
12	2/1(목)		자유에 대한 죄(2)/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	2/2(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재산에 대한 죄(1)	
14	2/3(토)		재산에 대한 죄(2)	
15	2/5(월)		재산에 대한 죄(3)	
16	2/6(화)		재산에 대한 죄(4)	
17	2/7(수)		재산에 대한 죄(5)	
18	2/8(목)		재산에 대한 죄(6)	
19	2/9(금)		재산에 대한 죄(7)	
20	2/10(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1)	
21	2/12(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	
22	2/13(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1)	
23	2/14(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	

※ 예정진도는 실제 강의진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